



대형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선원의 대형스님께서 응대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하늘이 무너져도 눈깜짝 않는 믿음”

“내가 먼저 고개 숙이면 상대도 그냥 숙여줍니다”
가정 회사 국가도 같은이치

더우나 추우나 항상 도반으로서 한 도량에 한자리를 같이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가야겠습니다.

부처님을 가리켜 '사생의 자부' 라고 하는데 오늘은 사생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생을 어떤 의미에서 사생이라고 합니까. 사생이라는 뜻을 제대로 아시고, 그 사생의 전차만별로 벌어진 문제들을 지혜롭게 굴러서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생이라는 것은 태로 낳는 것, 알로 낳는 것, 화해서 낳는 것, 습한데서 낳는 것, 이 네가지로 태어나는 모든 생명들을 말합니다. 습한데서 사는 생명들도 천차만별이고, 알로 낳아 사는 생명들도 천차만별이고 또 화해서 사는 생명들도 천차만별이고, 태로 낳아서 사는 생명들도 천차만별이란 말입니다. 그 천차만별 가운데 영혼이 깨끗하고 밝고 정갈하게 사는 생명들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영원한 자기의 근본 불성이 바로 자기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 불성이 있기 이전 영혼은 그 자체가 깨끗해야 되는데 깨끗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육신은 튼튼하고 정상인데 영혼이 불구인 사람이 있고, 몸은 불구이나 영혼이 아주 깨끗하고 정상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과거로부터 우리가 불구가 나오게 할 수 있는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불구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불구가 된 인연으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가 닥쳤을 때 뼈저리게 울면서 자기가 불구라는 걸 자각하면서 살아가고, 자기가 제일 밑에 있기 때문에 보는 것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위가 됐으면 잘 보지 못할텐데 밑에서 보기 때문에 판단을 잘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멀쩡한 분들도 이 마음이 불구가 돼서 보지 못하고 들

지 못하고 질풍방이인 분들이 많거든요. 그건 뭐냐하면 모습이 그런 게 아니라 마음자체가 그렇단 말입니다. 영혼이 맑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본다면 육신불구에 영이 불구가 된 사람이 많으나, 아니면 육신은 건강하는데 영혼이 불구가 된 사람들이 많으나 생각해 볼 때, 몸이 불구된 사람일수록 영혼은 더 깨끗하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차원에 따라서 모습이 주어지고 삶이 주어지고 복도 주어지고 그러는데, 영혼을 그렇게 불구로 만든다면 몸이 불구로 사는 사람보다도 더 형편없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침착하게 생각 안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사생들이 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날아다니는 새들도, 육지의 짐승들도, 물에서 사는 고기들도, 또 질척한 땅에서 사는 생명들도 다 그렇죠. 그러니 이게 심각한 것이, 필연적으로 우리는 이 마음의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마음을 똑바로 가지고 살아야겠죠. 그렇다고 해서 돈을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또 사람을 하지 말아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단, 사랑을 하되 자비로 해라 이겁니다. 자비를 얘기할 때 '비' 자를 무슨 '비' 자를 썼습니까? '슬플 비(悲)' 자를 썼죠? '기없어서 내 아픔같이 생각하고 기없어서 내가 너를 건지겠노라'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너를 건지는 데는 내가 네가 돼주마"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주지 않는다면 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전에도 가끔 얘기했지만 서산대사 얘기를 또 해야겠습니다. 서산대사는 나는 새도 떨어뜨렸다고 하는데 그걸 그냥 새도 떨어뜨렸다고 하는데 그걸 그냥 새도 떨어뜨렸다고 하는데 그걸 그냥 어떻게 나는 새를 떨어뜨릴 수 있느냐. 그건 바로 서산대사 마음이 새가 됐단 얘깁니다. 새가 됐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내



그림 · 최주현

四生, 차원 모습 다를 뿐 불성 윤회 똑같아 “이 몸은 한 철살다 버릴 집 집착할 일 없어”

려왔는 거죠. 그것 뿐이 아니죠. 부처님께서 사생자부라고 그랬습니다. 일대사의 인연을, 사생과의 인연을 다 맺었기 때문에 들어 아닌 까닭에 자부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달되어 우리가 사생들의 사는 모습과 과정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생들의 생활은 각각 어떠한가, 또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가 봅시다. 차원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다 뿐이지 이치와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러니 생명도 돌이 아니고 마음도 돌이 아니요, 부모 자식이 되고 형제가 되어 사는 것도 돌이 아닙니다. 자식이 아프면 애똥해하고 자기는 겁테기만 남아도 자식을 위해 다 내주는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차원이나 모습은 다름지언정 불성이라는 법의 부모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억겁으로부터 진화해서 형성시켜 나온 장본인이니까요. 이 모습이라는 건 한철 살다가 망가지면 그냥 다시 바꾸는 것 뿐입니다. 바꾸는 데는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바꾸어지죠. 그러나 아무렇게나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이리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하나만 잘못해도 좋은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가 잘못되면 찌단추 잘못 끼는 것과 같아서 대대로 내려가면서 다 잘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집안에 한사람이라도 마음공부를 꼭 하셔야 이겁니다. 물론 다하면 더 좋겠지만 말입니다.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많습니까. 부모를 두고 자식이 별안간에 죽는대거나 부모도 자식들을 두고서 별안간에 죽는대거나 하는 일은 끔찍한 일입니다. 사람들만 그렇게 아닙니다. 짐승들도 그렇게 되면 자식을 못맞추어서 그 죽은자리에 맞반이고 가서 울고 그럽니다. 그게 사람과 뭐가 다를까요?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요, 내 몸이 것도 한철 살다가 버릴 집인데 우리가 뭘 그렇게 남의 것을 탐내고 집착하고 욕심낼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꼭 이렇게 살아야만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가는 것 억지로 잡지 말고 나한테 닥치는 거 마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흡수해서 나 아님이 없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아랫사람이 강하고 뻗어도 내가 고개를 먼저 숙여준다면 상대방에서도 그냥 숙여줍니다. 내가 웃사라고 하고 숙여주지 않는다면 아랫사람도 전혀, 겉으로는 숙여줄지 모르나 안으로는 숙여지지 않습니다. 이게 진리의 원 근본이죠. 진리에서 살고 진리에서 죽고 진리에서 배우고 이러한 것이 불교가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어느 가정이나 회사나 국가간도 마찬가지로 첫째 융통성있게 내 머리를 숙여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

“내가 너 돼주마”
가없이 여기는 마음
중생 건집니다

을 해야만 합니다. 내 속에만 넣어두고 상대를 무시하게 되면 오해가 생기고 점점 문제가 커집니다. 자식과 부모사이도 그렇고 부부사이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나가서 일을 하는데 뭐가 잘 안풀리면 집에 와서도 얼굴이 찡푸려지고 온갖 짜증을 다 냅니다. 그러면 부인이 걱정이 되어 물을 것 아닙니까? '여보, 무슨 일 있었어요? 왜 그러니까?' 하면 벌떡 화를 내면서 '여자가 알면 뭘해, 몰라도 돼.'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나 무슨 대화가 되고 마음이 나갑니까? 애걸해주면 직접 나가서 뛰어주지는 못해도 '그거 빨리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고 마음이라도 나갈 것 아닙니까. 마음으로 뒷받침을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안에서는 그런 걸 다 모르고 오해가 생기고 감정만 상하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런데, 이러니까 내가 마음이 괴로워서 그래.' 이렇게 해주면 '그렇구나, 저거 어떡하든지 잘 돼야지.' 하고 그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는 것처럼 마음을 써 주는 것이 한마음이란 말입니다. 한 가정에서도 이렇게 의합하고 자식들한테도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

18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중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중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154)

렌즈를 잡은 손이 흔들리면 불을 얻을 수 없다.

“마음 깊은 그곳에 모든 원리가 숨어 있다. 모든 두려움과 질망과 무거운 마음의 짐들을 다 내려놓고 다 맡겨라. 잘 된다고 잘될 것이다 라는 기대까지도 다 맡겨라. 믿고 맡기는데 아무런 찌꺼기가 없어야 한다. 여한이 없어야 한다. 사랑심 분별심 욕심도 다 맡겨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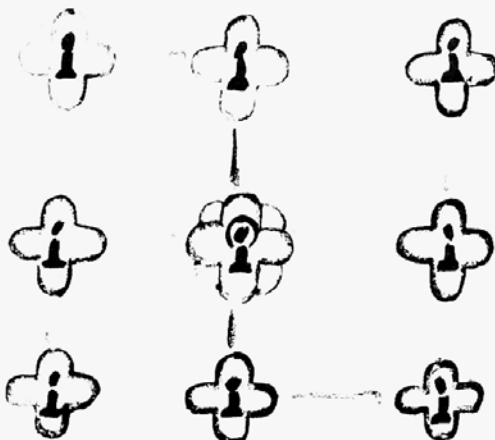
그렇게 모든 것을 맡겨 놓을 수 있다면 두뇌를 통해 사대로 통신이 되는데 한 생각이 수십만의 입자로 되어 작용을 한다. 마음 깊은 그곳의 거대한 에너지 창고가 열리고 빛보다 빠르게 작용을 한다. 그렇게 유심 무심이 작용을 해야만 불이 들어올 수 있다.”

걱정 · 불안 · 망념 · 공상 · 번뇌 · 잡념 · 공포 · 분노 · 절망과 같은 감정이나 상념은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맞닥뜨리는 것들이지만 삶에 도움을 주는 요소는 못된다. 실은 그런 감정이나 상념이 모두 삶을 보다 더 살찌게 하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욕구와는 달리 오히려 삶의 활력을 잃게 한다. 마치 저 오목렌즈가 빛을 산란시켜 빛의 강도를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 뿐만아니라 그런 상태는 바른 생각,

바른 판단을 방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빛나간 언행을 자초하게 만든다. 보다 나은 상태로 진보하고 싶어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는 결과가 된다. 나아가서는 주변에까지 나쁜 영향을 전파시키게 된다.

누구나 다 바르게 생각해서 바른 길로 가고 싶어한다. 그리고 모든 일이 생각한대로 잘 되어가기를 바란다. 그러나 바르게 생각하려고 애쓰는 것과 바른 길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또 생각을 많이 한다고해서 바른 길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다. 하루종일 사과가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고 해도 사과 밭으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 많은 생각은 오히려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자신을 생각의 노예가 되게 한다.

어떤 일에 자신감을 갖고 목표가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집중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또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창조적인 견해를 갖는 것도 바람직하다. 산란한 생각보다는 그 편이 일의 성취를 위해 더욱 효과적이다. 저 볼록렌즈가 빛을 한 점으로 모



아들어 마침내 불을 붙이는 것처럼 마음의 집중은 큰 힘을 발휘한다. 수백을 찾아서 여기 저기 삼갈을 해대는 것보다 한 곳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물을 얻기가 쉽다.

마음은 무한량의 에너지 창고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마음의 산물이라고 한다. 무한량의 에너지창고가 아니고서야 그로부터 어찌 삼라만상이 벌어졌다고 하겠는가. 고로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잘되게 하고 싶다면 그 창고의 문을 열어라.

그것만 열면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두려워 할라. 바르지 못함을 염려할 까닭도 없고 잘못될까 걱정할 일도 없다. 이 생각 저 생각에 잠 못이루는 밤이 더 무엇이든 불안과 공포는 다 무엇이든 오로지 창조와 진보만이 내 앞에 있을 것인즉.

문을 열려면 깊이 들어가라. 마음의 심연(深淵)으로 깊이 들어가라. 볼록렌즈가 빛을 모아 한 점을 비추듯이 깊이 깊이 수렴하라. 그래서 내 마음에 드리워진 불안·걱정·두려움 따위의 장막을 태워버려라. 이 생각

저 생각으로 흩어지는 마음을 모아 한 점으로 수렴하라. 바깥세계를 향해 흩어지는 생각들을 안으로 거둬들여 내 마음에 한 점 초점을 만들고 그곳을 비추라. 모아서 비추고 그 곳을 관하라.

생각이 나온 그 자리가 바로 내가 되돌려 비출 자리이다.

비춤은 믿음이고 놓음이다. 렌즈를 잡은 손이 흔들리면 초점이 흔들려 불을 붙일 수 없다. 고로 철석같이 믿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나의 자리를 비추라. 일체의 상념들을 그 자리에 되돌려 놓아라. 믿음으로 놓고 맡겨라.

잘 될까,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은 흔들림이다. 분별심도 놓고 사랑심도 맡기고 오로지 한 점에 수렴한다는 생각만 하라. 깊이 깊이 수렴하는 것이 관이다.

그러면 영감이 떠 오르고 에너지가 솟구친다. 내면 깊숙한 곳에서 소리가 울려나온다. 큰 울림이 있다. 바른 생각 바른 길은 거기에 있다.

협찬: 김경호 · 최계선